

제310회 정기 이사회 의사록

건명	1. 제487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제2021-9호 2021년 6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상정자	사장 김명중		
일시 및 장소	2021. 6 17.(목) 15:59 ~ 17:30, 18층 대회의실		
출석 인원	이사 9명	결석 인원	없음
참석자	유시춘 이사장, 김양은 이사, 김진 이사, 문종대 이사, 박강호 이사, 선동규 이사, 이영한 이사, 장옥님 이사, 정동섭 이사		
회의 결과	1. 제487호 : 공개, 원안 의결 2. 제2021-9호 : 공개, 청취 접수	기록자	간사

위 의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21년 7월 15일

이사장 유 시 춘

이 사 김 양 은

이 사 문 종 대

이 사 선 동 규

이 사 장 옥 님

이 사 김 진

이 사 박 강 호

이 사 이 영 한

이 사 정 동 섭

인)

제310회

이 사 회

- ◆ 일 시 : 2021년 6월 17일(목) 16시
-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국교육방송공사 본사 18층 대회의실

한국교육방송공사

회 순

I . 개회	1
II . 인사	2
III . 전차 의사록 확인	4
IV . 상정안건	5
< 의결안건 >	
제487호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 보고안건 >	
제2021-9호 : 2021년 6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31
V . 폐회	36

(開會 : 15時 59分)

I . 開 會

○ 議長 유시춘

김혜영 국장님, 성원보고 해 주십시오.

○ 理事會 事務局長 김혜영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아홉(9) 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 하였기에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이종풍 위원장, 김무성 사무처장, 김경민 사무국장 등 모두 3명입니다.

○ 議長 유시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합니다.

((議事棒 三打))

II. 人 事

○ 議長 유시춘

안녕하세요.

지난 이사회 이후에 성큼 여름이 바로 곁으로 다가온 듯합니다.

일교차가 큰데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접종들 하셨나요?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1회 접종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연락과 접종을 위한 안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계 최고의 IT 선진국의 위력을 저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척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올해 어쩔 수 없이 사회 모든 분야가 COVID-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백신이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마스크를 벗을 날이 곧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안전한 사회로 돌아오기를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EBS 모든 식구들이 열심히 일에 파묻혀 있습니다만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과 판단이 절반 지점에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잘 분석해서 더욱 내실 있는 하반기를 준비할 때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6월 22일 교육방송 47년, 공사창립 21주년이 되는 창립기념일입니다.

창사 이후에 온 국민의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의 보완을 위해 애써주시고 또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EBS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작년 올해 COVID-19의 위기상황에서 한국은 결코 교육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EBS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고 그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또한 하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국민에게 더욱 필요한 방송, 그리고 국민에게 더욱 삶과 피가 되는 유익한 방송으로 도약하는 EBS가 되기를 창사 47년에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안건은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입니다.

이사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실 줄로 믿겠습니다.

그럼 김명중 사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 社長 김명중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처럼 오는 6월 22일은 EBS 공사 창립 21주년입니다.

EBS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시고 항상 EBS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사장님과 이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EBS에 대한 변함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는 창립행사는 최소 인원으로 조촐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일들이 많습니다.

12일 토요일에는 2021년 신입직원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을 정규 특집 프로그램 공모 및 심사가 6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 4월 EBS가 제작사협회, 독립PD협회와 체결한 외주상생협력 공동선언의 내용이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유 주제 공모에서 선정된 외주제작사 작품이 케이블TV, IPTV 판매수익은 사업수수료를 제외하고 EBS와 제작사가 50:50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제작환경 개선, 그리고 더 나은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송사 중 EBS가 최초로 선언하고 시행하는 이 상생협력 방안인 만큼 잘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사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6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사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Ⅲ. 前次 議事錄 確認

○ 議長 유시춘

그럼 전차 의사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개최된 제309회 정기이사회 의사록을 모두 이메일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理事들 있음]

예. 그러면 동의해 주신 대로 제309회 이사회 의사록은 원안대로 접수합니다.

((議事棒 三打))

IV. 上程案件

○ 議長 유시춘

회의 공개 여부인데요.

오늘 487호 의결안건과 제2021-9호 보고안건은 규정에 의해서 공개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決案件〉

【 第487號 : 2021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

○ 議長 유시춘

그럼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議事棒 三打))

정책기획센터장, 상정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양해해 주시면 담당 실무부장인 기획예산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그러면 가장 내용을 잘 꿰고 계시는 실무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豫算副長 김우영

기획예산부장입니다.

안건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별도로 준비한 설명자료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금년 추경의 기본 방향, 개관, 그리고 세부 내역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1 기본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은 목적과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경 목적은, 우선 최근까지의 수익사업 실적을 토대로 수익사업을 재정비함으로써 예결산 간 괴리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아울러 교부금 예산 등 확정된 변수를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된 필요사업비를 적시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장을 위해 수익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계획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추경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수익사업의 조정입니다.

예산 편성 당시와 대비해서 달라진 사업 환경과 실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목표로 수익과 비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 목표 달성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투자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보조금의 조정입니다.

교육부를 통해 수행하는 정책사업은 지방교부금, 특별교부금 등의 교부금 사업과 올해 디지털 뉴딜

관련하여 반영된 국고보조금 사업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중에서 교부금사업 중 원격교육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서 이월예산이 발생하였고, 3, 4월에 확정 통보된 올해 사업계획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결산 확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등 각종 비용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가 발생한 여러 사항에 대한 비용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경안의 개관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수입예산은 289억원 증가하였고, 비용예산은 250억원 증가하여 둘 다 3,889억원이 되어서 당기순이익은 당초 -39억원이었던 것을 균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예산은 6억원 증가한 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을 보시면 추경안을 통해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 전 부분은 균형재정이 되면서 당초 예산 대비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경 대상을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수익사업의 조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 여건, 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조정하였고, 출판, 문화콘텐츠, 온라인 3개 사업에서는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초 예산 대비 수입은 161억원이 증가하였고, 비용은 104억원이 증가하여 57억원의 이익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부금 사업의 조정입니다.

이월예산과 교부금의 확정을 반영함으로써 수입은 128억원 증가, 비용은 131억원이 증가하여 3억원의 손실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복지기금의 출연과 주차장 및 회의실 등 업무 환경 개선 등 총 15억원의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추경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은 바로 세부 사항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5입니다.

교육보조금입니다.

128억원 증가하여 1,124억원이 되었습니다.

AI영어말하기, 원격교육지원, 교육콘텐츠개발, 온라인클래스재구조화 등 4개 사업에서 작년 사업비가 정산이 되고 올해 사업계획이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수익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61억원 증가하여 2,223억원입니다.

먼저 방송사업입니다.

35억원 증가하여 330억원입니다.

백신 접종, 경기회복 등에 대한 기대감이 광고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실제 실적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상회한 것을 반영하여 광고사업만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출판사업입니다.

75억원 증가하여 983억원입니다.

최근 실적을 토대로 목표를 조정하였고, 아울러 작년 교재 판매에 대한 반품추정부채 잔액이 67억원 발생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 참고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반품추정부채 현황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재 판매 목표를 책정할 때 반품될 것을 고려하여 반품추정부채를 동반하여 설정하는데, 작년에는 온라인클래스의 영향으로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실제 반품률이 하락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고 결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에서 아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실 반품률이 과년도 10%를 상회하던 것이 7.2%로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방송기반단행본의 경우 과대 계상한 측면이 있는 목표를 현실화였습니다.

참고자료에서처럼 작년에도 발간계획과 수익목표 모두 절반 수준을 달성하였고, 올해 4월까지 실적 또한 20% 수준의 달성률을 보임에 따라 목표수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총 3건의 신규투자를 반영했는데, 그중 첫 번째로 출판사업에서 문해력 교재 판매사업에 11.3억원의 비용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내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해서 31억원의 수입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경을 통해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과 교재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초·중·고 총 52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문해력은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으로 기본 문해력에서부터 과학문해력, 정보기술문해력 등 총 6개 문해력으로 구분되면서 향후 전체 문해력으로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콘텐츠사업입니다.

하단의 세부사업 중 IP기반 사업에서 펍수의 화제성 인기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70% 가까이 실적 하락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적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수익사업투자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수익사업투자’ 두 번째입니다.

내용은, IP 관련해서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직영화하는 것과, ‘듀나프 렌즈’라는 신규 IP를 사업화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라이선스 직영화의 경우, 이 예산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뒷장에 라이선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p)9 상단의 참고자료입니다.

라이선스 사업의 경우는 현재 8개 카테고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완구와 잡화 2개 카테고리를 직영화하고, 의류 등 신규 3개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총 5개 카테고리 10개 품목을 직영화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체적인 화제성은 감소했지만 고정적인 팬덤을 대상으로 해서 대행체제 대비 수입은 7억원, 이익은 2억원 이상 증가할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IP 듀나프렌즈는 수능교재에 탑재되어 이미 인지도가 있는 IP입니다.

그래서 별도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를 사업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 9억원, 이익 7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을 고려한 목표 감액과 신규 투자를 통한 증액으로 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콘텐츠 사업입니다.

5억원 증가한 169억원입니다.

미디어플랫폼 부문에서 쿠팡플레이 등 신규 OTT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등의 실적 개선 요소를 반영해서 10억원 증액했습니다.

유튜브는 작년에 실적을 견인한 팽수 화제성이 하락하는 등의 감소세를 고려해서, 그리고 구독서비스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5억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온라인 사업입니다.

26억원 감소한 201억원입니다.

사업 개선 또는 경쟁력 강화 계획을 반영하여 목표를 잡았으나 실제 실적과 괴리가 있어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약 60% 증가하여 구독체제 전환에 따른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맨 하단의 추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작년 8월 전환 이후 구독자수와 수입실적 모두 확연한 상승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상승 촉진을 위한 추경을 통해서 명의(헬스케어)와 오디오 교양 등 2개 카테고리에서 콘텐츠를 확충하고 서비스를 보강하는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 부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이트 기반 제휴사업은 당초 ‘명품직업’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중학프리미엄’ 실적이 지속되고 ‘초등프리미엄’을 런칭하는 등의 계획을 목표에 반영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실적 부진이 명확히 예상되어 13억원 감액하였습니다.

EBSlang 또한 실적부진에 따른 배분액 감소와 클라우드 전환비용 상계 등 이슈를 반영해서 3.4억

원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기타 수탁 및 협찬용역 사업입니다.

72억원 증가한 378억원입니다.

수탁사업은 ‘세계석학’ 사업의 수주와 ‘오프라인공간’ 사업의 이월예산을 반영하여서 증가하였고, 협찬용역사업의 경우 실적은 부진하지만 하반기 예고돼 있는 정부정책사업의 수주 목표를 반영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입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장 비용예산도 역시 그다음 (p)13 세부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15.5억 감소한 760억원입니다.

신규채용이 8명 증원된 계획을 반영해서 증액한 반면, 교육보조금 인건비 대체 계획분이 교부금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금액이 확정되어 추가 24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프로그램 제작 부분입니다.

6억원 증가한 581억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석학’ 수탁사업 수주 조건에 제작비 10억원 매칭 투자가 있어서 제작비 내에서 5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5억원을 증액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된 전년 대비해서 제작 출장 빈도가 증가하여 제작차량 임차 건이 늘어난 실적을 고려해서 임차예산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보조금 사업입니다.

131억원 증가한 1,130억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입과 연동한 예산입니다.

다음 (p)14 자체수익사업입니다.

38억원 증가한 757억원입니다.

먼저, 방송사업은 4억원 증가한 68억원이고 광고수입 증액과 연동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널공급에서 HD 전환과 관련해서 회선을 공유해서 절감되는 이슈가 있어서 회선료 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업입니다.

20억원 증가한 479억원입니다.

목표 조정에 따른 비용 조정이 반영되었고, 수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문해력 신규투자 1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p)15 문화콘텐츠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해외판매에서 해외출장비를 실적을 고려해서 감액했고, IP 기반 사업에서 수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라이선스 사업 직영화와 신규 IP 사업 추진비용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유튜브 콘텐츠의 제작편집 인력 운영기간 감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온라인 사업입니다.

8억원 증가한 166억원입니다.

수입에서 말씀드린 구독서비스 사업에서 콘텐츠 제작이 5억원, 플랫폼 고도화 1억원 증액했습니다. 콘텐츠는 방송용이 아닌 오리지널로 제작하고, 명의(헬스케어)가 988편 3억원, 오디오 교양이 1,000편 2억원을 각각 제작할 계획입니다.

사이트 기반 제휴는 목표 조정 및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비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협찬용역사업 또한 수입 목표와 연동해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억원 증가한 33억원, 기술운영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클라우드 구축사업의 잔금 13억원과 DTV 음량기준 관련 방송법 준수를 위해서 음량 안정화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표에서처럼 작년 클라우드 구축 예산 총 43억원으로 특교사업비로 26억원, 자체 1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특교사업비 연내 집행을 우선으로 하게 되면서 자체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덜 집행되었고, 결산 과정에서 전년 실적에 넣어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예산편성 시에는 빠졌고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경영관리입니다.

12억원 증가한 190억원입니다.

대규모 정책사업 수주 등으로 사업이 크게 확장됨에 따라서 부족한 주차장, 회의실, 회의실 5개입니다. 이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1.5억원, 그리고 채용방식의 변경에 따라서 1.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결산 확정에 따른 사내복지기금, 당기순이익 5%입니다. 출연 3.2억원을 반영하였고, 온라인클래스를 통해서 교재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응해서 무상교재 제작부수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년사사 제작비 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방통융합서비스입니다.

온라인클래스 이슈와 관련해서 비상대책단 운영비와 초중 플랫폼 회선료 증가분 등 이슈로 인한 비용을 8,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분을 확충하고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서 계수 조정한 예비비를 사업 조정에 따라서 6,300만원 증액, 3억원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하단입니다.

세부 사항을 보시면 방송장비가 2.4억원 증가한 28억원입니다.

앞서 기술운영 비용예산에서 말씀드린 DTV 음량기준 방송법 준수를 위해서 관련 음향장비를 구입

하는 예산을 반영했고, 다음 장, 그래픽 편집 등 특수직무에 있는 신입사원에 대한 특수업무용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물량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NLE 편집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를 증설하는 비용을 방송장비에 1억원, 그리고 공기구비품을 보시면 부속비품 1억1천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은 아까 말씀드린 LNE 시스템 부속비품과 함께 채용 인원이 확대되면서 관련한 노트북 등 업무용 전산기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원래 편성되지 않았으나 외부 스튜디오를 임차 사용 중인 클래스e 스튜디오의 이전과 관련하여 증액된 보증금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뒷부분은 그로 인해서 추정 변동되는 재무제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해당 부서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유시춘

의견 주십시오.

예, 이영한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理事 이영한

우리 EBS 총 예산이 3,889억, 엄청나게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2018년에 2,700억 정도 규모에서 3,889억원, 약 45% 정도가 성장을 했거든요.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EBS가 더 사회적인 역량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 투자, 직원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사회 때도 제가 ‘교육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 109쪽을 보면 교육훈련비가 나옵니다.

교육훈련비가 3억4천 정도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 안에 이사회 운영비를 빼면 2억3,500만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총 예산에 비교해 보면 1%도 안 되고 0.06%예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EBS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교육훈련비’로 돼 있거든요.

이 명목을 ‘교육연수훈련비’로, ‘연수’를 더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수를 넣고, 그다음에 이 훈련비의 비용을 더 증액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외부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회사나 조직을 찾아 가지고 거기서는 교육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외조사 같은 것을 해서 우리도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랜, 연차적인 플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단지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종합플랜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유시춘

박강호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理事 박강호

저도 이영한 이사님 말씀하신 것 연동해서, 지난번 이사회 때 경영평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경이 나오면서 경영평가 한 내용이 일부 반영이 된다거나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그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영한 이사님께서 ‘R&D 인력 재투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경영평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중장기 전략, ‘앞으로 10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런 것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다.’ 쪽 각 부문별 평가마다 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한 추경이 보이지 않아, 혹시 그런 게 감안이 됐다면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까 사전설명 자리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구독서비스 관련해서 ‘EBS가 구독이 필요하냐?’ 그런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 당연히 미래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아까 설명하기로 ‘샘플 모델링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작년 9월에 유료화를 시작했으니까 올해 9월이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을 맞아서 이와 관련한 컨설팅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독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유시춘

예, 정동섭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理事 정동섭

광고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광고수입이 많이 늘어났나요?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한 22% 정도 늘어났습니다.

○ 理事 정동섭

설명을 아까 사전협의회하고 달리 지금 설명하실 때 ‘코로나도 완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광고수입이 늘어날 것을 반영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작년에 KOBACO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에 안 나가서 광고가 늘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관점도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은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광고시장, ‘방송광고시장이 흑자로 돌아선 회사가 많다, 방송국이.’ 그런 것을 한번 참조하셔서, 우리 이사 쪽에서는 방송광고수입이 늘면 늘수록 좋은데, ‘이게 혹시 활성화하고 역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저는 광고 느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예측하는 게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企劃豫算副長 김우영

광고와 구독 부분은 사업센터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구독서비스는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매출목표는 줄었고요.

올해 이슈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클라우드 이전을 하면서 프리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손을 볼 수 없었던 기간이 한 두 달 여가 돼서 지금 이전 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고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여기 설명 나왔지만 <명의>하고 <오디오 어학당> 같은 것들의 콘텐츠를 지금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 여건이나 이런 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더 어떤 콘텐츠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독자 조사나 이런 것은 예산하고 얘기해서 진행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능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생각한 것만큼 많은 인원이 다량으로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광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뭐와 상충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 理事 정동섭

KOBACO 자료에 ‘코로나로 바깥에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방송광고가 작년에 대부분의 방송국들이 흑자를 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코로나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기대감 때문에 경제도 활성화되고 광고시장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에 반영했다.’ 그러시길래, 물론 그 사업도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또 한쪽에 그런 분석도 있으니까 잘 감안하셔서 일을 추진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 企劃豫算副長 김우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광고매출은 제작년에 비해서 한 20~30% 정도 빠졌었고요. 올해는 백신도 있고 해서 경제적으로 보면 다른 방송사도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또 추가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박강호 이사님 말씀하셨던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부분, 그리고 이영한 이사님 말씀하셨더니 교육 연수에 대한 부분, 교육연수에 대한 부분은 경영지원센터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중장기 계획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관련해서 이사님들 포함해서 외부 평가위원들이 너무 열심히 상세히, 또 굉장히 귀한 말씀들을 주셔서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인 한계가 사실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면, 지금 하반기부터는 거버넌스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래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트랙을 잡고 있다면, 저희가 지금 수신료 관련해서 저희의 중장기 공적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만일 KBS 이사회에서 확정이 되면 이사회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방통위에 또 넘기는 작업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사적인 계획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 그것을 다듬어서 방향성을 하나 제시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중장기 자체 사업 계획에 대한 방향성들을 저희가 정밀하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바뀌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차기 거버넌스의 부분들을 일정부분 플러스를 시키되 저희가 큰 골격을 유지하는 그 토대에 대한 부분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신료 베이스로 저희의 중장기 책무에 대한 부분을 밝혀야 되는 트랙 하나하고, 자체 사업 부분에서는 저희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만들어놓고 차기 거버넌스 부분과 연계를 시켜서 이것을 정치화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송구스럽게도 그 말씀하셨던 부분까지는 미처 담지 못 했고요.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자체 사업의 상반기 실적들을 반영하고 공적재원이 플러스마이너스 된 부분을 감안해서 1차 추경을 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理事 박강호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구독서비스 이것 하면서 혹시 Letter 보냅니까? 편지.

○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Letter 시스템이 지금 아직, 사이트도 사실 고쳐야 될 것들도 있고 비용도, 하여튼 고쳐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다 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함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 議長 유시춘

예, 김양은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김양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독서비스와 관련해서 새롭게 콘텐츠를 투입해서 구독서비스를 확장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있는 콘텐츠들을 어떻게 구독하시고,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EBS의 콘텐츠를 알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EBS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렌디, 아주 트렌디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기본 가치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지식과 교양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경쟁에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콘텐츠들을 잘 분류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잘 닿도록 해줄 건가.’도 구독서비스의 성과와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독서비스의 확장을 위해서 플랫폼이라든가 콘텐츠의 여러 가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시는 것도 물론 숙고해서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거겠지만, 어쨌든 1년차 되면서 우리가 구독서비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아마 훑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로베이스에 두시고 여러 가지 방안과 고민을 한번 조사를 하든가 들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구독에 들어왔는데 구독을 끊은 사람들이 왜 끊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요, 예를 들면 계속 구독하시는 분이 느끼는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저희가 넷플릭스나 이런 것과는 다른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EBS의 구독하시는 구독자들이 구독을 하는 게 콘텐츠에 대한 욕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EBS에 대한 로열티로 구독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베이스에서 기존 방송하고는 OTT 서비스에서 하는 구독시스템과는 다르게 고민을 하고,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콘텐츠 외에도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많은 콘텐츠들을 어떻게 이분들이 찾아서 볼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서비스해 주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아마 말씀하신 레터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말에 그런 논의들을 했고, 사실 올해 처음에 매출목표를

세우면서 27억의 비용이 한 20억 혹은 22억 정도로 예산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더니 한 10억 정도 추가 투자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첫째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2년, 3년을 계속 기다릴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째는 흑자를 보는 선에서 시작하고 상황을 봐서 10억 정도의 추가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사실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議長 유시춘

예, 선동규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理事 선동규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이 최종 세팅이 됐는데요.

4천억 가까운 예산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죠.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문제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 예산이 집행될 것이냐?’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제작비가 과다 신청되는 것은 없는지, 또 다른 업무 현장에서 예산의 누수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또 불요불급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없는지, 혹시라도, 흑여라도, 그런 일이 그동안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흑여라도 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게 지금 다른 이사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이라고 봅니다만 서류상으로 몇 백억, 몇 십억, 몇 천억 이렇게 하니까 ‘그런 모양이다.’ 하고 지금 추측만 할 뿐이지 이게 사실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대로 책정한 예산이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또 투명하게 집행이 됐는지 하는 것을,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제대로 감시를 한다 그럴까요, 제대로 체크를 한다 그럴까요, 그런 데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서 그런 데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체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議長 유시춘

예. 김진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理事 김진

약간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설명자료 (p)16을 보다 보니까 콘텐츠 사업의 비용이 1,800만원 정도 줄었다고 하면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편집 인력 1명의 운영 기간을 단축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액은 적기는 한데요, 이분과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었던 것이며, 왜 6개월 감축을 하게 됐

고 남은 기간의 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그 부분은 체크 지금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죠?

지금 현장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까?

○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예, 지금 체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문종대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문종대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박강호 이사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특수 소멸 이후를 대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이 뭔지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자체 사업계획이나 수신료 전사적 계획 이런 것 빼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용 중에서 장기적인 대비, 코로나 이후에 장기적인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企劃豫算副長 김우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달에 있을 단기 실적 보고 때 부가해서 설명 드리겠지만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이전의 신수종사업, 전략성장 지원사업으로 바뀐 9개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투자 등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 일부가 이번 추경에 3가지 사업, 건수로는 4개 건에서 신규 투자를 한 33억원 정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시 짚어보면, 콘텐츠에서 반향을 일으킨 문해력과 관련해서 문해력 교재 52책을 발간하는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향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미래 역량과 관련해서 반응을 봐야겠지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IP 같은 경우도 펍수 이후에 인기 I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올해 3개 정도 IP 제작을 했고 반응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듀나프렌즈’라고 기존에 교재에 있던 IP를 확장해서 사업화하는 부분을 신규투자에 반영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교재와 관련해서 출판사업에서도 그 외에 여러 가지 구독서비스와 연결된 부분, 그리고 다양한 교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계획을 중간에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장옥님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장옥님

설명자료 (p)7에 문해력 관련 교재 판매 신규 추진에 수입예산이 11.3억원이 책정이 돼 있고, 그리고 (p)14에 보면 비용예산으로 19.7억, 수입에 비해서 비용예산이 상당히 많이, 50% 이상 되나요?

○ 企劃豫算副長 김우영

(p)7을 보시면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일단 수립했고요.

이것도 사실은 매우 면밀하게 검토된 것은 아니고, 사실은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콘텐츠가 이슈를 끌면서, 그리고 이게 미래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라 전사적인 회의를 몇 번 거쳐서 미리 출판사업 부에서 준비해 오던 바는 있지만 제작진과의 협의도 거치고 해야 돼서 일단 2개년 사업을 수립해 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2년 동안은, 올해 당장은 커리큘럼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선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 -8억원 정도이고, 내년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는 25억원 투자해서 31억원을 벌어서 한 6억원 정도 마진을 남기는 계획을 세우고 일단은 반영했습니다.

○ 理事 장옥님

예, 그럼 이해를 했고요.

지금 문해력 관련,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특집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교재 판매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그 특집프로그램 말고도 문해력 관련해서 저는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정규성이라 그럴까요, 스테디하게 우리가 교재도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마당에 사람들한테, 여기 보면 단계별·영역별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52책이면 상당히 많은 책을 만드는 거니까 이것을 그냥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특집으로 반짝할 게 아니라 정규 프로그램화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올해 1회 추가경정이고 또 앞으로 가을에 하반기에 추가경정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 이사회가 이사회 예산으로 잡힌 것에서 사실 해외연수가 한

1억 가까이, 9,900만원인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그게 있는데, 아직 COVIC-19 상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요원한 일인 것 같고, 이 예산은 아마 고스란히 남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회사에서도 이런 예산이, 예상은 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저희에 대한 배려로 이런 것을 미리 이렇게 다른 데 전용한다거나 이런 말씀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후에 2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아까 다른 이사님들도 건의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업무역량 개발하는 연수비용이라든가, 저희가 사실 지난해 몇 해에 걸쳐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건설적으로 회사에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豫算副長 김우영

편성,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해력 관련해서?

○ 理事 김양은

잠깐, 문해력 관련해서 덧붙이는 얘기라서.

제가 제 전공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제 전공이라서 눈에 들어와서 드리는 건데, 사실 문해력으로서의 미래 역량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 쓰여 있는 프레임이 어휘, 쓰기, 독해, 디지털, 리터러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것을 이 프레임만 보면 말은 미래 역량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사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래 역량적 관점에서의 문해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획 중이신 거니까, 예를 들면 해외의, 다른 나라들의 언어교육이나 이런 패턴에서 나오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 변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단순히 어휘, 쓰기, 독해, 디지털, 리터러시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소통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라든가 혹은 내지는 이게 어휘와 쓰기, 독해만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뭔가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돼 있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영상이나 혹은 내지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이나 읽기, 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에 이 문해력의 개념에서 확장으로 다루어진 게 꽤 오래 됐고, 국내에서도 아마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언어 차원에서도 다양한 프레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나중에 이것 구체적으로 기획이 돼서 나오실 때는 조금 더, 어디서 자문을 받으시든가 조금 더 조사를 하셔서 이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미래 역량의 프레임 속에서 논의가 돼서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을 하고요.

또 하나 더하면, 경영에 참여했던 이사로서 드리는 얘기인데, 아까 박강호 이사님이 중장기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사회 경영평가에서 매년 나오는 게 중장기 계획인데요.

그 계획이라는 게 거버넌스 구조가 바뀐다고 바뀌는 중장기 계획을 얘기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나 이런 구조와는 무관하게 EBS가 선제적으로 ‘교육방송으로서 우리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사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우리 구성원들 생각의 공유와, 그 비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한 것들은 거버넌스 이런 것은 사실 나중에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요소들이라서, 아마 경영평가위원들이 생각하는 중장기 계획과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경영진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議長 유시춘

제가 종합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계 여러 굴지의 학자들의 진단은, 포스트 코로나가 결코 그 이전의 문화의 측면에서, 우리가 삶의 형태를 문화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진단들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인류가 그 이전의 문화로 복원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이 진단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인데요.

우리 이번 경영평가위원들께서도 하나의 지적사안으로 미래 전략에 대한 선투자가 아쉽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R&D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이 저도 좀 서운하고요.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시청률 1~2%를 가지고 다투는 EBS가 아니고, 우리의 승부처는 콘텐츠입니다.

다른 어떤 방송사와도 변별력과 차별성을 갖는 EBS만의 확실한 정체성을 갖는 프로그램이 지금 높은 시청률도 가지고 있고 또 매니아 층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콘텐츠의 미래 역량을 위한 투자가 3,800억이라는 예산에 비해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분 이사님들께서 다 중복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국내외 학자들의 포스트 코로나가 문화 전반에 있어서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드라마나 K-무비가 몇 백억을 들인 영화를 개봉하지 못하고 넷플릭스에 먼저 쏩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주요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총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EBS는 콘텐츠의 미래 역량을 위한 선투자를 지금 매우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선발 시에도 이런 콘텐츠의 미래 역량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영평가에서도 진단이 된 사안이고요.

좀 우스운 말로 하자면 ‘미래 역량을 위해서 표적 선발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상상도 하고 지적도 하고 진단도 합니다만 제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인들의 자녀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1~2학년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비대면 수업이 끝나고 정상화가 길어야 1년 앞으로 다가올 텐데요, 그렇게 반복되는 여러 반응들을 제가 접했습니다.

‘학교 필요 없어. EBS가 제공하는 콘텐츠들, 그리고 그 이외의 여러 콘텐츠들을 온라인상으로 접하는 것으로도 지식을 쌓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야말로 사회학자나 미래학자들이 진단하는 포스트 코로나의 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종이신문은 종이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는 가구가 10% 미만이고요, 전부 온라인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18년도에 PC에서 뉴스를 접속하는 것보다 모바일에서 접속하는 것이 능가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태를 접하면서 ‘교육의 형태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는, 이런 미래전략을 위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고 시급하게 고민해야 될 단위 주체를 EBS 내에서, 그것이 한 달에 진지한 회의 두세 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단위를 지금 설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공영방송에서 먹방을 계속 하고 있고요, 중편이기는 합시다만 트로트도 이제 식상할 때가 되었고요.

우리 EBS는 EBS만이 갖는 유니크한 정체성이 저는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미래전략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리고 화급하게 고민할 수 있는 단위를 세우기를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이사회에서도 두세 명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바깥에서 이 고민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날그날 떨어지는 과제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과연 미래의 EBS, 포스트 코로나의 EBS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내용 있게 다가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위를 세울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양은 이사님께서 구독자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유튜브로 여러 가지를

됩니다만 간혹 EBS Culture, e클래스 합니다.

그런데 저의 느낌은 좀 무성의하다 그럴까요, 딱 잘라서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올리는.

‘이 앞뒤에 핑수가 안내를 해 준다든가 이런, 구독자를 위한 친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구독자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이 EBS 로열티로 들어오든 또는 콘텐츠가 가진 어떤 타사와 차별되는 정체성 때문에 끌려서 들어오든 간에 구독자를 확장해야 되는 당위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것을 목표로 하는, 본업으로 삼는 그런 단위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해력은 상당히 좋았고요,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기획이야말로 정말 EBS가 타사가 추종할 수 없는, 흉내 낼 수도 없는 그런 EBS만의 정체성이 아닌가 싶고 이것을 더욱더 강고하고 확장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싶습니다.

○ 社長 김명중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 社長 김명중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이영한 이사님께서도 좋은 책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에 대한 선투자가 필요하고, 콘텐츠 미래역량에 투자하라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저희가 현재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그래서 메타버스 캠퍼스를 만드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기반의 영어 말하기 팽톡 서비스가 지금 37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또 수준별 학습 콘텐츠를 제작해서 AI 기반의 서비스를 시작하고요.

또 팽수 IP의 중요성을 저희가 절감했기 때문에 포스트 팽수 IP를 위해서 아까 예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4개를 출범도 시키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던 세계석학 플랫폼의 구체적인 운영, 제작과 콘텐츠를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서비스할 계획이고요.

또 현재 지금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취약해서 최근 편성하고 함께 젊은 청년들의 애니메이션 분야의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하면 공모해서 우리가 활력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몇 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향후 5년 정도의, EBS의 새로운 책무 기반의 중장기 사업계획과 재정 수요에 관해서 한 5년 정도로 예산까지 지금 거의 다 마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다음에 이사님들께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센터장님, 다음 이사회쯤엔 ?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BS 이사회에서 6월 30일 날 적정 수신료 산정 조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이사회 정도 잡아서 그 작업들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평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답을 어리숙하게 대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당연히 저희가 경청을 하고 그 부분은 고견을 들어서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社長 김명중

그리고 한 마디만 추가말씀 드리면, 선동규 이사님께서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혹시 모를 여러 가지 부패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주고 잘 체크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감사님도 옆에 있고, 일상적으로는 일상감사에서 또는 부서장들이 부장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감사님이 아마 좋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문 이사님.

○ 理事 문종대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갔고요.

그래서 교육보조금 문제에서 제가 사장님 말씀하신 것 연계시켜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AI 영어말하기 시스템 갖춰지면, 여기에 물론 나중에 지원이 교육부에서 더 이상 오지 않을 때 운영관리비용, 수익구조 혹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아까 AI 마을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 AI 학습진단 시스템도 한번 구축되고 나면 아마 장기적으로 수익구조를 남길 것 같은데, 이 두 영역의 관리비용하고 그에 대한 수익 예측, 혹시 이런 게 돼 있으면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企劃豫算副長 김우영

여기 학교본부장이 안 계셔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일단 앞서 사전 보고 때도 말씀드렸

지만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라서 3년 500억 규모에 묶이는 바람에 되지 않고 있지만, 사업을 다른 식으로 해서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병행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비용을 저희가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이영한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이영한

아까 제가 역량 강화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3년 동안 재정규모를 45% 늘렸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거든요.

양적인 성장은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질적인 발전을 해야 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국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결국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우리가 또 교육방송이고, 우리가 교육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했느냐?’ 반성 같은 것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7기 이사회가 7, 8, 두 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EBS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플랜을 가질지 그런 보고서 같은 것을 만드시면 7월 이사회든지 8월 이사회에 한번 저희들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첨가할 수 있으면 첨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혹시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長 김명중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 교육연수 비용을 줄인 이유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만 해도 1년씩 외부기관에 연수도 보내고 그런 비용이 수천만 원씩 해서 상당히 비용이 높았는데, 아마 경영위기 상황에서 그런 것도 없애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참여교육보다는 아마 인터넷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든 그런 영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리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과감하게 현 시점에서 비용을 못 집어넣은 이유는, 아마 내년 예산을 지금부터 걱정을 많이 하고 올해 특수로 인해서 왔던 예산들이 내년에는 또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도 과연 재정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교육훈련이나 이런 데 과감하게 못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지원센터에서는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충분히 하나 준비를 해서 다음 달, 만일 그게 어렵다면 그다음 달까지라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부분은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성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장기 비전 수립에 따른 그것을 토대로 한 바람직한 인재상, 그리고 기관에서의 직무역량 또는 직무별 핵심역량 이런 부분의 추출, 그리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연수 전문인력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타사 사례들도 검토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理事 문종대

시스템 구축사업이 약 500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구조 활용 방안이 없이 교육부에서 돈 주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수익률을 남길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 저는 충분히 검토됐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검토가 안 됐나요?

그냥 교육부에서 돈 주니까 받는 건가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그것은 아니고요.

실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학교교육본부장님이신데, 아까 이사회에 양해를 요청 드렸던 것처럼 내일 오후 3시까지 교육정책 네트워크 관련한 계획서를 내야 되는 관계 때문에 지금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을 학교교육본부장님한테 전달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理事 문종대

예.

○ 議長 유시춘

예, 선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선동규

제가 기본 지식이 약해서 궁금해서 여쭙보는 건데요.

설명자료 (p)20 맨 위에 보면 ‘신입사원(3명) 업무용 워크스테이션 구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간부분에 보면 ‘채용인원 확대 연동 업무용 전산기기 구매’, 그게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워크스테이션이 뭐예요?

○ 企劃豫算副長 김우영

개인별로 지급하는 노트북 외에 별도 그래픽이라든지 편집은 별도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 理事 선동규

컴퓨터 그래픽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映像아트센터長 고승우

예. 저희 영상아트센터 내에 있는 그래픽용 컴퓨터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 理事 선동규

CG 작업하는 보드?

○ 映像아트센터長 고승우

예, 맞습니다.

○ 企劃豫算副長 김우영

그래서 그 직무가 채용될 때마다 1인당 1개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 理事 선동규

그렇죠. 제가 그것은 압니다.

그다음에 ‘채용인원 확대 전산기기’ 그것은 신입사원들 노트북 사준다는 겁니까?

○ 企劃豫算副長 김우영

예, 맞습니다.

○ 理事 선동규

그리고 중간에 보면, 중간광고 자막 편집 장비 구매?

중간광고를 하게 되면 자막을 편집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습니까?

○ 企劃豫算副長 김우영

예. 제가 알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理事 선동규

제가 잘 몰라서 여쭙보는 겁니다.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저희가 중간광고를, 중간광고가 아니고 ‘PCM’이라고 해서 1부, 2부로 나누는 형태로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장비를 구매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했었고요.

중간광고가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시점에는 그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理事 선동규

예. 궁금해서 여쭙봤습니다.

○議長 유시춘

또 의견 있으신가요?

예, 정동섭 이사님.

○理事 정동섭

제가, AI 영어말하기 거기에 얹어 가지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특교사업으로 학교에 보급을 하면서 학생한테 돈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돈을 받는 건가요?

○社長 이명중

돈 안 받습니다.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액수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理事 정동섭

그러면 지금 3만 명을 22만 명으로 늘리는 것은 수익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이 받은 것을..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교육부에서 지원액이 늘어나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본부장님을 통해서 상세보고가 추후 진행될 예정이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저희가 선 지원을 받고 후에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계획은 지금 학본 내에서 짜고 있고 교육부에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내용에서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

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理事 정동섭

그것은 잘 하시는 건데, 우려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업적으로 공격적으로 막 늘리면서 수익 구조로 가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점이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도 해 주면서 우리한테, 다음 이사회가 될지 아니면 학교본부 자료를 받는 게 며칠 안에 우리한테 올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오해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그럼 다음 회의 때 학본 본부장께서 지금 영어 AI 교육 관련,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다음 이사회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의결해도 될까요?

[“예.” 하는 理事들 있음]

○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유튜브 인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그러시죠.

○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잡혀있던 인력의 운영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사실 구독서비스하고 유튜브 매출은 (현업)부에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까.’ 해서, 구글에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 10여 개 프로젝트에 2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2개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한 프로젝

트는 예산에서 떨어지고 한 프로젝트는 3개 전체 본선에 올라갔다가 이번에 떨어져서 그게 되면 인력을 투입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구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 동안의 계획으로 다시 짤 예정이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議長 유시춘

지금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지난번 경평에서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EBS에 수많은 콘텐츠가 널려 있는데 매장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검색을 하면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차원입니다만 그 아까운 내용들을 안내자가 부족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는 경평위원께서도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카이브에 있는 그 수많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영양가 많은 내용들을 손쉽게 다가가서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그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안건 제487호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議事棒 三打))

〈 報告案件 〉

【 第2021-9號 : 6月 主要 業務 推進 實績 및 計劃 】

○ 議長 유시춘

다음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9호 「6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을 상정하겠습니다.

((議事棒 三打))

정책기획센터장 보고해 주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2021년 6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p)12 1번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상을 받았던 <다큐프라임-60세 미만 출입금지>가 LA Independent Women Film Awards의 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이달의 PD상’ 그리고 ‘토론토 국제 여성영화제’ ‘휴스턴 국제영화제’에 이어 다섯 번째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2번 사항입니다.

아까 예산 때 얘기가 충분히 되어서요, <당신의 문해력> 후속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장옥님 이사님이 고견 주신 것처럼 저희가 문해력의 이슈가 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유치원 대상 ‘문해력 유치원’ 가제입니다. 그리고 ‘10대를 위한 문해력 프로젝트’ 부분을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양은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읽기, 쓰기, 현재 지금 저희가 카테고리를 그렇게 분류해 뒀지만, 이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개발을 또 외부 자문과 연계해서 미래 역량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10부작씩 해서 총 20편의 프로그램들을 론칭할 예정이고, 방송일은 후반기에 하고 내년 상반기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해력 유치원’은 실제 문해력 수준들을 리얼로 취재하고, 그리고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접근하고 여기에 부모님들의 눈높이까지 고려하는 그런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10대를 위한 문해력 프로젝트는 교재 연계로 강의 형식의 포맷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충분히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해력 교재 개발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의 문해력>이 크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 부분을 커리큘럼 베이스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이 부분을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를 더 제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교재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테고리는 그렇게 분류돼 있지만 그 내용들은 좀 더 정치화 작업을 통해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4번 사항입니다.

6월 모의평가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6월 모의평가시험이 중요했던 것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능연계가 50%로 줄어들었습니다. 첫 전국단위의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의평가에 대한 분석들을 지금 학교본부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아실 수 있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수능교재에서 직접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학본을 중심으로 지금 이 수능연계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격차라든지 교육회복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사전회의를 하고 저희가 교육정책 네트워크에서 발표된 정책자료집을 분석하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사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셔서 저희가 준비하는 상황들을 적극 어필했고, 이에 교육부에서 응답을 주셔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 내일까지 이것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사항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21년 블로썸 청소년 영상제 출범식이 6월 2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블로썸 청소년 영상제는 학교폭력, 생명존중 등을 주제로 EBS가 3년째 진행해 온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신사업기획부로 이관해서 첫 영상제가 올해 열리게 됩니다.

6번 사항입니다.

'21년 가을 정규특집 프로그램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 인사말씀에서 밝히셨던 것처럼 외주상생협력방안에 의거한 첫 번째 상생안이 적용되는 공모입니다.

이 공모 결과를 저희가 보고 다시 한 번 보도자료를 포함해서 저희의 상생물을 외부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신규직원 및 경력직원 공개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은 00명이고, 신규직원 입사는 9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경력직원은 00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경력직원 중의 일부는 저희가 조기 채용

해서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의견 주십시오.
 예, 장옥님 이사님 말씀하세요.

○ 理事 장옥님

세 번째 <비스트 오브 아시아> 시즌1 방송 이것은 자체제작이에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이것은 저희가 해외 공동제작, 해외 편당을 받아서 매년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3년차인가 4년차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공모, KC에서 공모로 알고 있는데요.
 공모 조건이 해외 5개국 또는 6개국과 연계해서 동시에 공동제작을 하고, 각국에서 동일한 주제로 방송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프로젝트가 공모가 됩니다.

○ 理事 장옥님

이 <비스트 오브 아시아>도 그렇고 뒤에 보면 블로썸 청소년 영상제도 그렇고, 저는 ‘비스트 오브 아시아’ 그래서 ‘BBC나 이런 데서 만든 것을 사서 편집해서 방송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제목 타이틀을, 이게 물론 국제적으로 서로 같이 공동제작을 하고 이런 관계로 이렇게 영어로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국내에서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목을 그대로 ‘비스트 오브 아시아’라고 했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사실 또 ‘블로썸 청소년 영상제’ 이런 것도 EBS에서 주최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꼭 영어 표현을..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제목이 상징하는 바는 알겠는데, 요새 사실 너무나 외국어 제목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EBS 정도면 어느 정도 타이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우리 좋은 한글도 많은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문해력 출판사업, 추경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여기 보니까 ‘2개 시리즈 각 10편 해서 내년하고 하반기에 방송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사실 처음에 문해력 방송했을 때 제가 유감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잘 귀담아 들어서 전달까지 했습니다.

○ 理事 장옥님

그것도 물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게 특집이나 시리즈로 이렇게 어느 일정시기에 방송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고, 또 거기에서 취재하고 이런 것 주로 장기간에 걸쳐서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실험도 같이 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짧게, 예를 들어서 매일 떠 편성으로 5분 짜리라도 문해력과 관련해서 유치원 대상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대상이나 연령대로 편성시간을 달리 해서, 아니면 성인대상으로는 밤시간에 한다면가 해서 5분 정도의 아주 짧게 정보를 줄 수 있는, 문해력 관련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스테디하게 방송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혹시 콘텐츠기획센터장님이나 방송본부장님..

○ 放送制作本部長 남선숙

<비스트 오브 아시아> 프로그램명 관련해서는 국제공동제작이라 이렇게 지은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신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타이틀 프로그램명 지을 때 저희들이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또 의견 주십시오.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이 블라썸 청소년 영상제는 처음 출범하는 거죠, 우리가?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이게 올해 3년째입니다.

○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사회공헌으로 시작했다가 올해 저희 쪽으로 넘어온 거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SK브로드밴드가 협찬하는 거여서 SKB의 'B'와 EBS의 'B'를 가지고 3년 전에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 같고요. 올해 행사 때 가능한지 물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3년째로 이어져온 행사여서 SKB에서 제목을 바꾸는 데 동의할지는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議長 유시춘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이 제작한 영상 콘테스트인가요?

○ 스마트事業센터長 성기호

예.

○ 議長 유시춘

알겠습니다.

또 의견 주십시오.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없으시면 그냥 의결할까요?

[理事들 “예.”]

그럼 보고안건 제2021-9호 「2021년 6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은 청취하고 접수합니다.

((議事棒 三打))

(閉會：17時 30分)

V. 閉 會

○ 議長 유시춘

이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10회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事棒 三打))

《散 會》